

역사콘서트에 참가하신 여러분!!! 함께해요~

월드체인저 되기!

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적인 문제를 넘어,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문제에 있어서 세계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글로벌 이슈입니다.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더 많은 이의 인권이 보장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구촌의 문제를 한국인 자신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진 월드체인저가 되어 주세요!!!

〈월드체인저 되기〉 <http://changer.prkorea.com>

월드체인저 활동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알아주기 이전에 대한민국 청년 스스로 먼저 다른 나라의 문화, 역사에 관심을 갖고 글로벌 이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에티켓, 세계 유산, 국제기구, 지구공동과제(기후변화, 분쟁, 빈곤 등)에 대한 교육 및 활동입니다

글로벌 청원 활동 전개

세계인의 참여를 통해 미래 국제사회에 설득력을 높여줄 이러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서명과 의견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. 위안부 글로벌 청원 활동에 참여한 후 여러분의 외국인 친구들에게 본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제안해 주세요! 다양한 SNS, 팬팔, 메일 등을 통해 본인의 외국인 친구에게 위안부 문제가 미래 동아시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리고 어떻게 인권 문제와 직결되는지 그 중요성을 알려주세요.

〈글로벌 청원 참여 방법〉 <http://theworldchanger.net>

더월드체인저 사이트 접속 → e-MUN → Petitions → Are you a global citizen who cares about the Human Rights? → 하단의 'Comment Your Opinion'에 본인의 청원문을 작성

〈세계인에게 위안부 문제 알리기〉 <http://chingu.prkorea.com>

반크 글로벌 친한파 외국인 사이트

| 삼일절기념 역사콘서트 |

희망을 말하다!

-일본군 '위안부' 할머니들을 위하여!

일시 : 2012.3.10(토) 13:00~16:30

장소 :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(화암홀)



주최 **동북아역사재단** (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) **사이버외교사절단반크** (www.prkorea.com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) **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**

후원 **중앙일보**



| 사전 마당 |

- 궁금해요~~ 일본군 '위안부' 문제가 무엇인가요?
- “눈으로 보고, 귀즈로 풀어 보아요~~” 푸짐한 상품이 기다려요!

사회 : 이찬우, 허서원
하남고, 예일여고 역사동아리가 함께합니다.

| 본 마당 | 사회 : 류시현(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홍보대사, 방송인)

- '위안부' 할머니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다
- “소녀이야기-부산영화제 출품작(김준기 감독)”
- 이야기 손님
 - 윤미향(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)
 - 서현주(동북아역사재단)
 - 김준기(영화감독)
 - 와다 요시히로(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일본건설위원회 활동가)
 - 김새봄(반크)
 - 장하은·조민지(양서고 '햇담')
- 공연 손님
 - 극단 고래 '빨간시'
- 청소년 여러분은 일본군 '위안부'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
(ARS 모바일 현장 투표)

| 마무리 마당 |

- 할머니 뵙고 싶었습니다! 할머니와 함께 해요!
- 함께 희망의 꽃을 피워요~
- 다함께 부르는 노래 '바위처럼' : 신나는 율동도 같이 해요~

| 체험 마당 |

- 할머니 힘내세요! - 할머니에게 희망의 메시지를~
- 영원히 기억할게요! - 우리들의 지문으로 만드는 할머니 얼굴



일본군 '위안부' 문제, 이것이 궁금했어요!



언제부터 일본군 '위안부', 일본군성노예로 부르고 있는가?

용어논의 과정

- 1992년 8월 11일~12일, 서울에서 개최한 '제1차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' : 강제 중군위안부
- 1993년, 10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다시 용어에 대한 논의 : 위안부로 불렸던 여성들이라는 의미에서 ' '를 사용하여 '위안부'로 하고, 범죄 주체인 일본군을 붙여 일본군 '위안부', 영어로 일본군성노예(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)로 사용하기로 합의



어떻게 하는 것이 일본군 '위안부' 문제 해결인가?

일본정부에게 요구하는 7대 요구

- 정대협은 일본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지른 일본군 '위안부' 범죄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의 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- 하나, 일본군 '위안부' 범죄 인정
- 둘, 진상규명
- 셋, 국회결의사죄
- 넷, 법적배상
- 다섯, 역사교과서 기록
- 여섯,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일곱, 책임자 처벌

일본군 '위안부' 문제 관련 주요연표

-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|
| 1990.11.16 | 37개 여성단체와 개인이 모여 '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' (이하 정대협) 결성 | 1997.4.2 | 관부재판 야마구치 지방 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가 일본국에 대해 '위안부' 3명에서 각각 30만엔의 배상금 지급판결 |
| 1991.5.18 | 일본 오사카에서 '조선인 중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' 발족 | 1997.8.10~24 | 유엔인권위원회 차별 방지, 소수자 보호소위원회의 맥두갈 특별보고서 내용이 밝혀짐. '위안부' 문제에 관해 책임자 처벌, '위안부' 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일본 정부에 권고 |
| 1991.8.14 | 일본군 '위안부' 김학순(당시 67세) 할머니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위안부였음을 밝히는 기자회견 | 1998.5.7 | 한국정부,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금 3,150만원 지급 |
| 1992.1.8 |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'위안부'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시작 | 2000.12.7~12 |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개최 (일본 동경) 일왕 히로히토 유죄 판결 |
| 1992.2.25 | 한국정부, 전국의 시·구청에 피해자센터를 설치. 피해신고·증언을 받음 | 2001.3.21 | 일본의 민주당, 사민당, 공산당 참의원이 '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의 해결의 추진에 대한 법률안' 을 단일안 상정 |
| 1992.8.10~11 | 서울에서 제1회 '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' 개최, 한국, 필리핀, 대만, 태국, 홍콩, 일본 등 6개국 참가, 용어를 강제중군위안부로, Military Sexual Service by Japan으로 쓰기로 합의함 | 2003.6. | 미국의회에서,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상·하원 공동결의안 제출 |
| 1992.10.30 | 나눔의 집 개소식(강덕경, 노청자, 이용녀 입소) | 2003.12.20 | 정대협 쉼터 우리집 개설 |
| 1993.6.11 | 한국정부, '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' 법률안 공포.
93년 8월부터 전 '위안부' 할머니들에게 일시금, 생활비 지급개시 | 2004.12.16 | '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' 건립위원회 발족식 개최 |
| 1993.8.4 | 일본정부, 제2차 위안부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, 일본정부는 처음으로 '구일본군은 위안소 설치 및 운영과 위안부 이송에 관하여 직·간접 간여를 시인하는 고노 관방장관 담화발표 일본정부 위안부에 관한 2차 보고서 발표 | 2005.8.27 | 한국정부, 한일협정 문서 공개 |
| 1994.9.2 | ICJ(국제법률가위원회) 일본군 '위안부' 문제에 관한 권고안 발표 | 2007.7.30 |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군 '위안부' 결의안 (HR 121)만장일치 통과 |
| 1996.4.10 |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이 「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보고서」를 구두로 보고함.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정부의 거절요구에도 불구하고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공인하는 결의를 채택 | 2010.6.7 | 유엔인권이사회, 일본군 '위안부'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 강조.
라쉬다 만주(Rashida Manjoo)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'여성폭력에 대한 배상' 보고서 발표 |
| 1997.1.11 | 일본 국민기금. 한국인 피해자 7명에게 위로금 200만엔과 의료복지금 300만엔 목록과 하시모토 총리의 사과편지 전달 | 2011.8.30 | 한국헌법재판소,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한국정부 위원결정 |
| | | 2011.12.14 | 1000차 수요시위(9개국 44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집회) 중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설치 |

일본군 '위안부'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

| 1991.12.6 가토 관방장관 |

- 정부가 관여했다고 하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함. 일본군 '위안부' 로 동원되었던 한국인 여성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 “정부로서는 대처하기 곤란하다”며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힘

| 1992.1.13 가토 관방장관 |

- “방위청에서 발견된 자료를 비롯해 관계자들의 증언과 이미 보도된 미군 자료를 보면 일본군 '위안부' 의 모집과 위안소의 경영 등에 구일본군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생각한다.”
-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“한·일 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협정의 해석으로는 한·일간의 보상 문제는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.”

| 1992.7 일본정부, '위안부' 문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발표 |

- '위안부' 문제에 대한 정부 관여 인정,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음. 보상을 대신한 조치 검토 표명

| 1993.8 일본정부 2차 조사결과(고노담화) 발표 |

- 일본군과 관헌의 관여와 징집·사역에서의 강제 인정,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승인하고 사죄
- '위안부' 의 징집 및 '위안소' 제도의 운영주체가 민간업자로 이해될 여지 남김

| 1995.7 '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' 발족(2007년 3월 31일 해체) |

- 국민모금(6억엔), 정부출연금 14억엔, 정부보조금 28억엔 합계 48억엔의 기금 마련
- 위안부 피해자 1인당 200만엔의 보상금 지불, 의료·복지지원 사업,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한 총리 편지 전달(한국, 필리핀, 대만의 285명을 대상으로)
- 한국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법적 책임 불인정, 배상이 아닌 민간차원의 위로금으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아시아여성기금 활동 반대

| 현재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 |

- 일본군 '위안부' 문제를 포함하여 지난 전쟁과 관련된 배상이나 재산,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끝남
- 고령에 이른 위안부 피해자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(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) 이들에 대한 의료, 복지지원사업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 최대한 협력 해 옴
- 2011.3.1 후지무라 오사무(藤村修) 관방장관 “향후에도 무엇이 가능한 것인지 지혜를 모아 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음”